

스키 타고 총 쏘는 바이애슬론

북유럽 군인 대결에서 발전한 종목
러시아 출신 태극전사 암바꾸모바 출격

밀라노 동계올림픽 종목소개

바이애슬론은 '설원 위 마라톤'으로 불리는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흔들림 없이 쏘아하는 사격을 결합한 종목이다.

눈이 많이 내리는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 국경 수비대가 스키를 타고 사격 실력을 겨룬 것이 인기를 끌면서 스포츠로 발전했다.

1958년 첫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 바이애슬론은 1960년 스쿼벨리 대회에서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데뷔했다.

그러나 이전에도 동계올림픽에서 바이애슬론 형태의 경기가 '밀리터리 패트롤(Military patrol)'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졌다. 1924년 샤모니 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열렸고, 이후 1928년 생모리츠 대회, 1936년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대회, 1948년 생모리츠 대회에서 시범 종목으로 펼쳐졌다.

스쿼벨리 올림픽에서 바이애슬론은 남자 20km 개인 종목으로 데뷔했으나 이후 인기가 높아지면서 종목이 세분화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 동계올림픽부터는 여자부 경기도 정식 종목이 됐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바이애슬론에 총 11개의 금메달이 걸렸다. 세부 종목 중 프리스타일 스키(15개), 스피드스케이팅(14개), 크로스컨트리

스키(12개)에 이어 스노보드와 함께 4번째로 금메달 수가 많다.

2022년 베이징 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세부 종목은 개인(남자 20km·여자15km), 스프린트(남자 10km·여자7.5km), 추적(남자 12.5km·여자 10km), 매스스타트(남자 15km·여자 12.5km), 계주(남자 4×7.5km, 여자 4×6km), 혼성 계주(4×6km)로 나뉜다.

선수들은 스키를 신고 양손에 폴을 쥐고 정해진 코스를 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다른 점은 선수들이 소총을 등에 메고 있다는 점이다.

선수들은 일정한 거리를 주행한 뒤 정해진 사격장에서 총을 쏜다. 사대에서 50m 거리에 있는 표적을 맞춰야 하는데, 표적 크기는 사격 자세에 따라 다르다. 입사(서서 쏘)는 11.5cm, 복사(엎드려 쏘)는 4.5cm다.

표적을 명중하지 못하면 세부 종목에 따라 페널티가 주어진다.

스키를 타고 긴 거리를 달려야 하는 지구력이 요구되고, 사격 시 집중력도 중요한 종목이다. 스키를 타고 달리다 사대에서 사격 자세를 취하는 동안에 최대한 빠르게 심박수를 떨어뜨려 안정적인 사격을 펼쳐야 한다.

개인전은 남자는 4km, 여자는 3km를 주행할 때마다 사격을 한다. 5발씩 총 20회 사격을 하며 표적을 명중하지 못하면 발당 1분의 시간이 추가된다.



바이애슬론 경기 경기장면.

/뉴시스

주행 거리가 짧은 스프린트의 경우 남자는 3.3km마다, 여자는 2.5km 지점 마다 복사, 입사 순서로 5발씩 총 10발을 쏜다. 표적을 맞지 못하면 150m의 벌칙 코스를 돌아야 한다.

추적 경기는 스프린트에서 상위 60위에 들어가 출전할 수 있다. 높은 순위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출발한다. 스프린트와 마찬가지로 표적을 맞지 못하면 150m 벌칙 코스를 더해진다.

앞선 경기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30명

만 참가하는 매스스타트는 개인전과 달리 선수들이 동시에 출발하며, 사격과 벌칙 주행을 거쳐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서로 순위가 정해진다.

계주는 4명이 팀을 이뤄 경쟁하는데, 혼성의 경우 남자 2명과 여자 2명이 팀을 이룬다.

이번 동계올림픽 바이애슬론 종목은 안톨츠-안테셀바 바이애슬론 아레나에서 2월 8일부터 21일까지 열전이 벌어진다.

바이애슬론에서는 전통적으로 유럽 국

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노르웨이가 가장 많은 55개(금 22개·은 18개·동 15개)의 메달을 가져갔다. 독일이 54개(금 20개·은 21개·동 13개)로 뒤를 잇는다. 프랑스가 메달 32개(금 12개·은 9개·동 11개)로 3위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바이애슬론 남자부에서는 2025~2026시즌 월드컵 랭킹 1위이자 안방 이점을 안고 있는 톰마스 자코멜(이탈리아)과 랭킹 2위 에릭 페로(프랑스)가 유력 금메달 후보로

꼽힌다.

여자부에서는 월드컵 랭킹에서 선두 독주를 펼치는 루 장모노(프랑스)가 금메달을 노린다.

한국에서는 러시아 출신 귀화 선수이자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여자 7.5km 스프린트 금메달리스트인 예카테리나 암바꾸모바(전남체육회)가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에 이어 3회 연속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선다. 남자부에서는 최두진(포천시청)이 출격한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I | FORENA

★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라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안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커뮤니티인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의곡천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영 윤영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세영 GS건설
세영 (주)한화/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은반 수놓을 '피겨' 신지아, 12년 만에 메달 도전

밀라노 동계올림픽 스타

'신성' 신지아(18·세화여고)가 2014 소치 동계 올림픽 이후 끊인 한국 피겨 스케이팅의 올림픽 메달 사냥에 나선다. '동계올림픽의 꽃'으로 불리는 피겨 스케이팅은 은반 위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종목이다. 대중들에게는 '퀸' 김연아로 친숙하지만, 한국 피겨스케이팅은 그가 은메달을 획득한 소치 대회 이후 단 한 차례도 올림픽 포디움에 오르지 못했다. 김연아를 보고 자란 일명 김연아 키즈들이 동계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 각종 메이저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유독 올림픽에선 약했다. 김연아 은퇴 후 한국 피겨스케이팅이 올림픽에서 기록한 최고 성적은 2022 베이징 대회에서 나온 남자 싱글 차준환의 5위다. 여자 싱글 기준으로는 베이징 대회 때 나온 유영(경희대)의 6위다. 한국 피겨스케이팅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이번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통해 12년 만의 올림픽 메달에 도전한다. 남자 싱글에 차준환이 있다면, 여자 싱글에선 신지아가 기대주다. 신지아는 2022년부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회 연속 은메달을 목에 걸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증명해 냈다. 지난 2년간 키가 급격히 크는 탓에 신체 변화를 겪으며 점프의 축이 흔들리는 성장통을 겪었다. 2024~2025 주니어 그랑프리에서는 은메달 1개를 따지만, 나머지 1개 대회에서는 시상대에 서지 못했다. 올림픽이 있는 2025~2026시즌 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무대에 데뷔했으나, 1차 대회 7위, 2차 대회 5위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그러나 신지아는 포기하지 않고 이겨냈다. 최근 진행된 국가대표 1, 2차 선발전 합산 점수 436.09점으로 전체 1위에 올

라 상위 2명에게 주어지는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꿈에 그리던 올림픽 무대에 처음으로 서게 됐다. 지난 23일 이번 올림픽 전 최종 모의 고사의 의미로 참가한 2026 ISU 피겨스케이팅 사대륙선수권대회에선 전체 6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날 진행된 쇼트프로그램에서 14위로 부진했으나, 총점을 더한 프리스케이팅에서 추격전을 펼쳐 최종 6위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한 바 있다. 신지아는 트리플 악셀 등 고난도 기술을 구사하진 못하지만, 부드러운 스케이팅 스킬과 섬세한 표현력을 가진 선수다. 지금까지 같고닮은 실력을 생애 첫 올림픽에서 뽐낼 예정이다. 신지아는 "(올림픽을 보러 온) 관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연기를 보여드리고 싶다"면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뉴시스